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옫: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위로"

신정론(Theodicy) 시리즈 ①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위로의 하나님

D. A. 카슨 지음 | 한 동 수 옮김



CLC

[https://www.youtube.com/watch?
v=kYHXGPadHP4](https://www.youtube.com/watch?v=kYHXGPadH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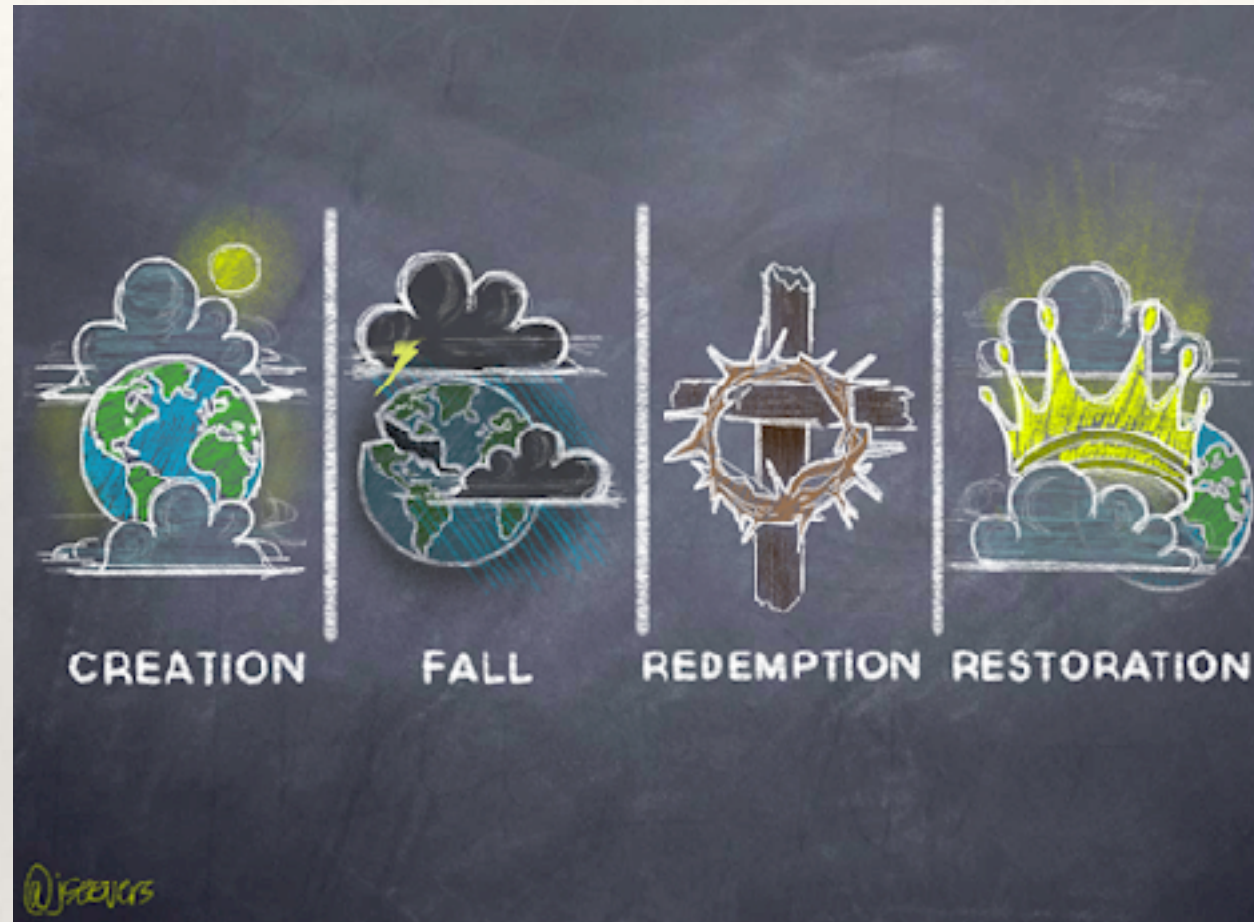


7주차 주제

“고난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

1.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2.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이다.
3. 종말론적 관점에서 악과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1.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마 3:2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 4:17

➡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본성 교리”

1.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 일이 있는 뒤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밭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눅 10:1-18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말씀은 각종 기적들과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군대를 최초로 물리치시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역으로 이어진다.” 카슨, 206.

1.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 곧 자기희생과 자기증여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 군대를 소멸시킴으로써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부들이 보았던 것과 같이) 십자가로부터 통치하신다.” 카슨, 207.

e.g. 존 폴킹혼의 자유과정 방어(Free Process Defence)와 자유의지 방어(Freewill Defence)

2.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있다.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눅 17:21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눅 23:42-43

2.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not yet) 완전히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마 19:28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고전 15:25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벧후 3:13

2.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이다.

-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악과 고통에 대한 심판과 완벽한 회복은 유예되어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벤후 3:21-26

2.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이다.

- 출산통(birth pains)사상과 악에 대한 심판의 일시적인 유예

마 13:24-30; 36-43

[http://www.holybible.or.kr/B_SAENNEW/cgi/bibleftxt.php?
VR=SAENNEW&VL=40&CN=13&CV=99](http://www.holybible.or.kr/B_SAENNEW/cgi/bibleftxt.php?VR=SAENNEW&VL=40&CN=13&CV=99)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 24:6-8

3. 종말론적 관점에서 악과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

- 18-20절은 믿음을 통한 선포,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바라보는 것.

시편 73편

http://www.holybible.or.kr/B_SAENNEW/cgi/bibleftxt.php?VR=SAENNEW&VL=19&CN=73&CV=99

-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시 49:15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시 73:25-26.

7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나의 경험 중에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후 일어난 일들을 통해 돌아보았을 때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경험이 있었는가?
-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러한 상징들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가?